



월주 스님이 프랑빠야프라우금산사 초등학교에 세워진 로프펌프식 우물을 돌리고 있다.



지구촌공생회 투어단 40여 명이 학교에 들어서자 지역주민과 학생 등 500여 명이 박수로 환영했다.



신규학교 건립 협약식을 맺은 월주 스님 (왼쪽)과 테풍 스님.

“더 많은 빈곤국가와 함께 할 것”

이사장 월주 스님 인터뷰

월주 스님은 국제개발협력사업분야에서 강행군을 하기로 유명하다. 팔순의 고령에도 1년에 7~8회 해외 지부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점검하며 젊은 활동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월주 스님은 “국가와 민족, 인종과 언어, 종교와 문화, 이념과 사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차별하지 않고 돕는 것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무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주 스님은 10주년을 맞이한 지구촌공생회가 1만 1천명의 후원자와 함께하는 중견단체로 성장할

“중견단체로의 성장은

정부·기업·후원자 덕분”

수 있었던 것을 정부와 기업이 비롯한 후원자들의 공로로 돌렸다.

스님은 “불자 여러분을 비롯해 종교를 초월해 자비와 사랑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주신 후원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준 200여 활동가와 임직원들의 노고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구촌공생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빈곤국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구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 즉, 마음의 본래 바탕자리로 돌아가 진리를 깨닫고, 자비를 실천해 중생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따깨오주=이아은 기자

“10년 급수공덕으로 20만 명 목마름 해소”

지구촌공생회 창립10돌...우물 2000기 완공 및 기념행사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마을로 향했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가끔씩 차가 들쭉였고, 흙먼지를 일으켰다. 오전 7시였음에도 햇빛은 강렬하고 더웠지만, 주민들은 바쁘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다. 손님을 맞이 위해 가게를 정리하는 상인, 오토바이를 타고 일터로 가는 사람들,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들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따깨오주(州)에 위치한 마을 초등학교 정문 앞. 하얀 교복을 입고 양쪽에 일렬로 늘어서 어린이들이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들고 흔들며 지구촌공생회 투어단을 환영했다.

캄보디아는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 등 물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귀한 나라다. 캄보디아는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 프놈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전무하다. 캄보디아 영야 사망률의 80%가 물과 관련된 수인성 질환인 정도로 식수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이곳 캄보디아에 우물 2090기를 지었다. 2003년 설

립된 이후 2004년 캄보디아에 해외지부를 처음 개설해 빈민지역 보건위생사업과 생명의 우물사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루어낸 성과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지구촌공생회는 11월 12일 2000번째 우물이 있는 프랑빠야 프라우금산사 초등학교에서 ‘생명의 우물 2000기 완공식’을 거행했다. 이 초등학교는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에 지은 7개의 교육시설 가운데 하나로, 월주 스님이 불제자로서 60년 세월의 대부분을 함께해온 금산사에서 후원했다.

오전 9시경 지구촌공생회 투어단 40여 명이 학교에 들어서자 지역주민과 학생 등 500여 명이 박수로 환영했다.

완공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지구촌공생회 이사 평상 스님과 원형 스님, 남고사 주지 원혜 스님,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화평 스님, 서원노인복지관장 보연 스님, 상주사 주지 도연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 회장을 비롯해 지구촌공생회 후원가족과 우썸씨외 바티군 부 군수, 응안 사리 바티군 경찰서장, 은반 바티군 교육부 부장, 온 반나 프랑빠야프라우금산사 초등학교 교장 등 현지인 관계자 100명

이 참석했다.

행사는 현지 스님의 축복 의례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및 월주 스님을 비롯한 현지 관계자들의 축사로 진행됐다.

월주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2090기가 건립되는 동안 358기를 지원해준 코이가(KOICA)를 비롯해 환경재단, 지구촌공생회 미국서부지부, 김백호 금산사 신도회장 등 총 1005명의 후원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 다투어 동참해 주었다. 13여여명의

2004년 생명의 우물사업 본격 활동

캄보디아 5개주 우물 2090기 완공

케냐, 미얀마 등 20만명에 급수공덕

“우물 사후관리 지속해 나갈 것”

비용을 들여, 16만 여명이 물로 인한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지인 관계자 우썸씨외 바티 부군수는 “예전 캄보디아에는 집, 학교, 가게, 문화 등 모든 것이 없었다. 우리는 평화와 개발이 필요했고, 그때 지구촌공생회가 우물을 건립해 캄보디아 국민을 돕기 시작했다. 바티군에 우물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주 스

님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100가구에 쌀을, 프랑빠야프라우금산사 초등학교 500여 학생들에게는 학용품과 속옷 등을 전달했다.

지구촌공생회가 10년간 국제구호사업을 진행 할 수 있던 것은 후원자들의 도움이 컸다. 이번 기념식에는 꾸준히 지구촌공생회에 후원해온 후원자들도 함께했다.

부친이 남겨준 유산 가운데 5천만원을 지구촌공생회에 쾌척한 마경원(48·여)씨는 “그동안 내가 후원한 금액이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는데, 뜻 깊은 곳에 쓰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좋았다”며 “앞으로 꾸준히 후원을 할 것이며, 지인들에게도 후원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지부 개설을 발판으로 한 생명의 우물사업은 케냐, 몽골, 미얀마로 확대돼 20여 만 명에게 급수공덕을 쌓아왔다”며 “현재 우물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질관리 및 수량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후관리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캄보디아나 호텔에서 ‘지구촌공생회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지구촌공생회 후원가족 및 스타터투어단과 현지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월주 스님 대화사, 국내 인사 및

현지 정부 관계자들의 축사를 비롯해 월주 스님과 캄보디아 승왕 테풍 스님과의 캄보디아 신규학교 건립 협약식이 이어졌다.

테풍 스님은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의 최근 10년간 지원 사업들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들의 빈곤을 감소 전략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해 줄 월주 스님과 지구촌공생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월주 스님은 지구촌공생회 우물사업에 도움을 준 우물업자 3명과 건축업자 1명에게 감사패를, 현지직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2012년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이면서 ‘2010 CNN 선정 올해의 영웅’으로 알려진 캄보디아에서 지뢰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카라씨에게 3만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월주 스님은 “앞으로도 캄보디아에서는 우물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코이가와 함께 지뢰 없는 공생평화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테풍 스님의 열망을 담아 2015년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건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지구촌공생회 10년간의 발자취

<p>2003~2005년</p> <p>2003.10.30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 발의로 창립</p> <p>2004.2.27 지구촌공생회 사단법인 보건복지부 인가</p> <p>3월 캄보디아 해외지부 개설</p> <p>11월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건립 사업 시작/ 라오스 해외지부 개설</p> <p>지구촌공생회 최초 교육지원시설 라오스 단는 공생 유치원 개원</p> <p>인도,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지역 복구사업 진행</p> <p>2005.01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빈민가정 결연사업 및 연해주 민족학교 교육지원</p> <p>5월 몽골 해외지부 개설/ 대형관 및 마을공동우물 개발 시작, 총 13기건립</p> <p>6월</p>	<p>2006~2008년</p> <p>2006.02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캄보디아 최초 교육지원시설 크나이 공생초등학교 개교</p> <p>7월 인도네시아 자진피해지역 긴급구호 및 유치원 4곳 건립</p> <p>8월 스리랑카 쓰나미 난민지원센터 건립</p> <p>10월 지구촌공생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NGO등록</p> <p>2007.01 코이가 민간단체지원 ‘캄보디아 마을 공동 우물 사업’ 선정</p> <p>4월 케냐 해외지부 개설</p> <p>12월 부설 공생노인복지센터 설치 신고</p>	<p>2008.08 미얀마&네팔 해외지부 개설 나르시스 태풍 피해 긴급구호</p> <p>2009~2011년</p> <p>2009.01 케냐 키세리안 핸드펀프 1호기 건립</p> <p>4월 케냐 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증대 지역개발사업 시작</p> <p>9월 미얀마 최초 교육지원 시설 예방공 공생 중학교 개교</p> <p>2010.01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1000기’ 완공</p> <p>8월 네팔 최초의 교육지원사업 스리시데술 공립학교 신축</p> <p>11월 미얀마 최초 식수지원 파옥웨민 마을 물탱크 1호기 완공</p>	<p>2011.04 11월 케냐 최초 교육지원 시설 연오노르 영화 초등학교 준공</p> <p>이사장 월주 스님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p> <p>2012~2013년</p> <p>2012.01 라오스 공생 청소년센터 개관</p> <p>8월 이사장 월주 스님 제16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p> <p>2013.01 캄보디아 지뢰제거연대(CSHD)와 지뢰제거사업 협약</p> <p>4월 케냐 인키니 농장 및 민세 저수지 개장</p> <p>6월 이사장 월주 스님 미얀마 최고 최위 ‘사따마 조디까다자’ 수훈</p>
--	--	--	---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수강생모집

전국 서울, 수원

구단구궁법

특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허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